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양형장식 연구

김동일 (前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국문요약

본고는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출토 양형장식을 대상으로 자료 신뢰도와 도상 판별 기준을 설정한 후, 문화 · 연대 · 기종 · 출토 맥락을 교차 분석한 뒤 장착 구조에 따라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형장식은 주로 유목문화에서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비녀 끝 장식 · 전신형 장식 · 패식 등 여러 기종에서 확인되는 반면, 옥황묘문화에서는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에 집중된다. 형태도 기종과 장착 구조에 대응하며, 패식과 요대장식에서는 전신 측면형이 있고, 비녀 끝 장식과 단추 장식에서는 부분 정면형이 주로 확인된다.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양류 형상이 기원전 12~11세기경 카라숙 청동기에서는 도검의 자루 끝 장식에 나타나고, 기원전 9~8세기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앞선 도구 말단 장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녀 끝 장식 · 전신형 장식 · 패식에서 확인된다. 기원전 7~5세기 옥황묘문화에서는 이미 형성된 동물 형상 착장 체계 속에서 양류 이미지가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에 다시 선택된다.

여러 시기와 문화적 조건 속에서 굽은 뿔과 두부 등 양류를 식별하게 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그 형상은 각 문화의 기종과 착장 체계에 맞추어 다시 구성되었다. 양류 형상의 선택은 당시의 생업 환경과도 연결된다. 본고에서 검토한 유목문화에서는 면양과 염소를 포함한 양류의 사육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인간이 생업 과정에서 양류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한 경험이 청동장식의 형상화와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양형장식은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에서 인간이 양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물질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가시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양류 형상, 동물 형상, 청동장식, 하가점상층문화, 옥황묘문화

Ⅰ. 머리말

Ⅱ. 자료 현황과 연구 방법
1. 자료의 범위와 시 · 공간적 분포
2. 연구 방법

Ⅲ. 자료 검토와 도상 분석
1. 카라숙 청동기 자료 검토
2. 하가점상층문화 자료 검토
3. 옥황묘문화 자료 검토
4. 형태와 기종의 대응
5. 도상 요소의 분석

Ⅳ. 사용 맥락과 해석

Ⅴ.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1S1A5B5A16077513). 동시에 2025년 11월 14일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선사시대 인간의 동물 인식 탐색: 돼지와 양을 중심으로」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이다.

Ⅰ. 머리말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의 동물 형상 청동장식은 인간과 동물이 맺은 관계가 물질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가시화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정 동물 형상이 일정한 지역과 기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것은 개개인의 취향을 넘어 해당 사회의 시각문화와 동물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이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지닌 관념으로 볼 수 있다(김동일 2019b). 특히 중국 북부지역과 동북지역, 그리고 그 주변의 접경지대에서는 사슴, 호랑이, 말, 조류, 양류 등 다양한 동물 형상 청동장식이 제작되었고, 그 가운데 양으로 보고되었거나 양류적 특징을 보이는 자료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 형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양 형상으로 지칭하는 문제는 청동기시대 동물 형상의 조형적 성격과도 관련된다. 초원계 동물 형상 장식에는 동물의 특정 특징을 강조하거나 여러 동물의 요소를 결합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하는 양형장식은 부분형과 전신형이라는 표현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확인되는 뿔 · 두부 · 체형 · 꼬리 등의 형태적 특징은 실제 동물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별 자료를 특정 종으로 확정하기보다, 기존 보고서나 선행 연구에서 양(羊), 양두(羊頭), 양형(羊形), 산양형(山羊形) 등으로 보고되었거나 양류(羊類)적 도상 요소를 지닌 청동장식을 포괄하여 '양류 형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류 형상'은 특정 생물학적 종을 확정하는 명칭이 아니라, 굽은 뿔과 두부, 체형, 꼬리, 자세 및 사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도상 분석상의 범주이다.

동북아시아의 초원계 동물 형상은 오랫동안 스키타이문화의 동진과 결부되어 설명되어 왔다. 최근 남시베리아와 투바의 초기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설명도 상당히 수정되고 있다. 특히 초기 동물양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남시베리아와 내륙아시아의 토착 초원 전통, 그리고 초기 유목 집단이 참여한 형성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Sadykov et al. 2025, 1570쪽).

주요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연대 문제에서 여전히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기원전 9세기 후반의 툰누그(Tunnug) 1호 쿠르간에서는 아르잔(Arzhan) 1호 쿠르간과 연결되는 동물양식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볼록한 고리형 눈과 중앙 구멍, 다리와 꼬리를 예리한 선으로 구획한 방식, 그리고 금속 조성의 유사성이 지적되었다(Sadykov et al. 2025, 1571쪽). 이와 함께 툰누그 1호 쿠르간에서 확인된 청동 양형장식 사례는 기원전 9세기 후반 남시베리아-투바에서 온전한 양형 도상의 청동장식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Sadykov et al. 2026, 43~58쪽).

최근에는 동물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를 양식상의 특징으로만 보지 않고, 장식의 사용 방식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툰누그 1호 쿠르간의 전차 장식에서는 동물 형상이 기물의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adykov et al. 2025, 1570~1580쪽). 이러한 견해는 필자가 옥황묘문화의 요대장식을 검토하면서, 허리와 대퇴부의 착장 위치에 따라 동물 형상이 정면 또는 측면으로 달리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고 본 점과도 연결된다(金東一 2018, 150쪽). 즉, 동물 장식의 자세와 방향은 실제 사용 상태에서 형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고려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원계 동물 형상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문제는 여러 동물이 결합된 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포식자와 다른 동물이 맞물린 형상을 주로 '동물투쟁(Animal combat)'의 범주에서 다루어 왔다(주경미 2022, 29쪽). 최근에는 실제 공격이나 투쟁 장면의 재현 여부만으로 이러한 도상을 설명하기보다, 서로 얽히고 결합된 동물 신체가 각 지역의 시각 전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구성되었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ndreeva 2022, 413~415쪽). Andreeva가 강조한 것도 초원계 동물 형상이 중국 북부지역으로 전달된 뒤 기존의 제작기술과 동물 표현 방식 속에서 지역적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변형을 밝히려면 외래 형상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사용되던 동물 묘사를 파악해야 한다.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국시기 사카계 동물투쟁 호형장식에서 재지 호랑이 묘사의 특징이 외래 형식과 결합하거나, 일부 신체 표현이 기존의 방식에 따라 단순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김동일 2019b, 41쪽). 외래 도상이 현지에서 다시 구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단계의 호랑이 묘사가 이미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양류 형상에서도 같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철기시대의 동물투쟁 및 복합 동물 도상에는 양류를 포함한 여러 유제류가 등장하지만, 외래 형식과 재지 표현의 결합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각 지역의 인간이 양류를 어떤 특징으로 묘사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청동기시대 양형장식의 뿔 · 두부 · 체형 · 자세와 사용 매체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이후 초원계 복합 동물 형상의 수용과 지역적 재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동물 형상 청동장식의 도상 분석은 주로 국외 학계에서 축적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 초원계 동물장식을 다룬 주요 논의로는 정석배와 강인욱의 연

구가 있다. 정석배는 '先흉노-스키타이 세계'라는 문제의식으로 유라시아 초원계 요소와 동북아시아 자료를 연결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정석배 2000), 강인욱은 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의 초원계 청동기 유입을 3단계로 파악하면서 이를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비파형동검문화권의 능동적 흡수 과정으로 해석하였다(강인욱 2010, 97쪽). 두 연구 모두 문화권 설정과 유입 경로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정 동물 형상을 독립된 자료군으로 설정해 도상 · 기종 · 착장 구조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필자의 선행 연구도 본고의 배경이 된다.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옥황묘문화 동물양식 청동기의 착장 및 사용 방식과 기원을 검토하여, 중앙아시아에서 동진한 계통과 남서시베리아에서 남하한 계통이 이 문화에서 융합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金東一 2018). 또한 기북지역을 반유목문화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 지역이 목축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이동생활을 영위하였음을 밝혔고(김동일 2021, 77쪽), 하가점상층문화 시기부터 비파형동검문화 시기까지 중국 동북지역과 기북지역 사이에 물건과 개념의 교류 및 인간의 이주가 함께 확인된다고 보았다(김동일 2022, 567쪽). 다만 이들은 각각 옥황묘문화, 생업 환경, 지역 간 교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동북아시아 전체 양류 형상을 주요 자료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본고와 관련된 세 가지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양형장식은 유럽 스키타이문화의 동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남시베리아 · 내륙아시아의 초기 동물양식 전통과 동북아시아 자료의 시기별 양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 형상의 자세와 방향은 사용 방식의 복원과 관련되지만, 동북아시아 양형장식에서는 기종 및 장착 구조와 결합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후대 동물투쟁과 복합 동물 도상에 반영된 재지 요소를 판별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지역적 동물 묘사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자료를 문화, 연대, 지역, 기종, 출토 맥락, 자료 신뢰도, 양류 판정에 따라 교차 분석한다. 이어 뿔과 두부, 체형과 꼬리를 판별 요소로 검토하고, 표현 범위와 자세 · 주된 관찰 방향, 조형 방식 등을 형상 구성의 요소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장착 구조에 따라 자료를 재배열하여 기종과 형상 구성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시간적 배열과 함께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부장 맥락과 반복 선택성을 통해 양류 이미지가 각 문화의 장식 및 착장 체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구성되며 가시화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동물유체보다 청동장식에 표현된 동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물유체 자료는 생업 배경을 살피는 데 활용하며, 개별 도상의 종 판별을 직접 대신하지는 않는

다. 한편, 각 문화의 생계 성격에 대한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김동일 2021; 2023; 2026)는 자료의 배경 조건으로 활용한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정식 보고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집성하였다. 자료별 출토 맥락과 보고 수준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해석 범위를 구분하였다.

Ⅱ. 자료 현황과 연구 방법

본고에서 말하는 '청동장식'은 독립된 장신구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기에는 비녀 끝 장식, 패식[1], 단추 장식, 요대장식[2]처럼 인체 · 의복 · 허리띠 · 휴대물과 결합할 수 있는 착용 및 부착 장식이 포함된다. 또한 카라숙 청동기 도검 자루 끝 장식처럼 도구나 무기류의 말단에 결합되어 기물의 시각적 효과를 구성하는 부착 장식도 넓은 의미의 청동장식으로 다룬다. 이들 자료의 사용 방식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청동장식을 일괄적으로 신체 장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착용 가능 장식, 부착 장식, 용도 미상 장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본고의 분석은 인간의 신체나 의복 등에 직접 착용 혹은 부착되거나, 패용하는 기물에 결합된 청동제 장식을 중심으로 하며, 장착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도상과 조형 방식의 비교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즉, 전차 · 마구 · 용기 등 인간의 착장이나 휴대 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매체의 동물 형상은 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도상과 사용 방식의 비교 자료로만 활용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양류 이미지 일반을 포괄하기보다, 인간의 착장 및 휴대물과 결합하여 가시화된 양류 이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1. 자료의 범위와 시 · 공간적 분포

본고의 분석 대상은 정식 보고와 선행 연구를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양류 형상 청동장식(이하 '양형장식')이다.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 출토 범위는 중국 북

1) 패식(牌飾)은 신분이나 집단의 근원을 상징하는 용도이며(金東一 2018; 김동일 2019b, 36~38쪽), 청동기시대에 목걸이의 펜던트처럼 사용하다가 철기시대부터 허리띠를 고정하는 바클형 대구로 사용된다. 다만, 본고는 청동기시대가 연구 대상이므로, 목걸이의 펜던트로 사용한 형태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요대장식(腰帶裝飾)은 허리띠 장식 체계를 구성하는 금속제 장식을 지칭하며, 허리띠 및 허리띠에서 대퇴부 상단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장식한다. 고리형 대구(帶鉤)와 바클형 대구(帶扣)는 허리띠 장식 체계에 속하지만, 그 근본은 허리띠 자체를 고정하는 도구이다. 이 때문에 고고학계에서는 요대장식과 고리형 대구, 바클형 대구를 서로 다른 기종으로 분류 및 인식하여 왔다.

부에 집중된다. 이 지역은 카라숙 청동기 도검 자루 끝 장식, 하가점상층문화의 소흑석구 · 나소대 · 남산근 자료, 옥황묘문화의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 등 본고의 주요 검토 대상이 집중되는 곳이다. 감숙 영창 일대의 서강(西崗) 관련 자료(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2001)는 분포와 도상 비교를 위한 서북지역 참고 자료로 다루며, 출토 맥락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심 논거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유적들은 대체로 유목문화에 속하며, 상당수 유적에서 목축과 관련된 동물유체 자료가 확인된다. 여기서 '유목계'라는 넓은 범주의 관점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는 유목문화의 다양성, 즉 반유목이나 하영지목축 등 유목문화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목문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문화유형을 종합하여 '유목계'라고 지칭한 바 있다(김동일 2026).

유목계는 유목문화가 중심이지만, 유목문화에서 정주문화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되며, 이들은 유목문화의 전통 상당수를 유지하면서, 생활 방식의 일부가 정착화되거나 접경지역의 정주 요소와 결합한 문화를 뜻한다(김동일 2026). 그 사례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유적을 들 수 있다. 대전자 집단은 유목문화의 전통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정주화가 진행된 유목계 사례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순생동물 가운데 양류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돼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본고의 주요 대상 문화와 생업 환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김동일 2023, 90쪽; 김동일 2026, 13쪽).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12~11세기경으로 논의되는 카라숙 청동기 자료에서 기원전 9~8세기 하가점상층문화 자료, 기원전 7~5세기 옥황묘문화 및 그 주변 자료까지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배열은 자료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곧바로 단선적 계보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문화 · 지역 · 연대의 차이는 양류 형상의 계보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양류적 이미지가 각 문화의 물질문화와 착장 체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 · 구성 · 가시화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한다.

채집품이나 출토 맥락이 불분명한 자료도 집성에 포함하지만, 그 활용 범위는 출토 정보와 유물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 판단하였다.

2. 연구 방법

양형장식의 해석에서는 개별 유물의 도상만큼이나 출토 맥락과 보고 수준이 중요하다. 동일하게 양류적 특징을 보이는 자료라 하더라도 정식 유적 출토품인지 혹은 채집품인지, 유구 · 층위 · 출토 위치 · 공반 유물이 확인되는

지, 장착 구조와 사용 방식이 판단 가능한지에 따라 논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본고의 자료 신뢰도는 출토 맥락의 확인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A급은 유적 · 유구와 매납 단위가 분명하고, 유구 내 출토 위치와 공반 관계, 도면 또는 사진을 통해 유물이 어떠한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B급은 출토 유적과 문화적 관련성은 확인되지만, 유구 내 위치나 공반 관계가 충분하지 않아 착용 · 부착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C급은 채집품이거나 출토 맥락이 불분명한 자료이다.

이러한 등급은 논증에서의 중요도를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토 맥락에 따라 가능한 해석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A · B · C급 자료는 모두 도상 · 형식 · 기종의 비교 분석에 활용하며, 유물 자체에서 장착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징도 함께 검토한다. 다만 유구 내 출토 위치와 공반 관계에 근거한 매납 상태 및 구체적인 착장 위치의 복원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는 A급 자료를 중심 근거로 삼는다. B · C급 자료는 유물 자체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출토 맥락을 전제로 실제 착용 상태나 매납 상태를 복원하지 않는다.

양류를 판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요소는 뿔이다. 본고의 자료에서 양류로 볼 수 있는 형상은 뿔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고 굽거나 말리며, 두부와 결합하여 양류 특유의 윤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사슴의 녹각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뻗어나가고, 가젤류의 뿔은 뒤쪽 또는 위쪽으로 길게 뻗어 고리 모양으로 말린 뿔과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원형에 가깝게 말리거나 나선상으로 굽은 뿔은 양류를 판별하는 가장 강한 단서가 된다.

염소는 수염이 표현되거나 목과 사지가 비교적 길고 몸통이 가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면양은 수염이 없고 몸통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표현되며 뿔이 강하게 말리는 경향을 보인다. 아르갈리를 비롯한 야생 양류도 뿔과 체형에서 비교 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남아 있는 자료에서는 면양 · 염소 또는 야생 양류에 가까운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

실제 동물유체 동정에서 면양 · 염소 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사시대 동물유체는 잔존 상태와 분석 수준에 따라 세부 종 판별이 어려우며, 중국 발굴보고서에서도 자연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가 포괄적으로 '羊'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김동일 2021, 89~90쪽). 이동 목축 집단에서 면양과 염소를 함께 사육하는 방식도 널리 확인되므로(김동일 2021, 90쪽), 양류는 실제 목축 환경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동물군이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동물종의 존재를 추측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면양의 존재는 염소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꼬리는 전신형 자료의 판별을 보완하는 요소이다. 염소의 꼬리는 짧고 위쪽 또는 수평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고, 면양은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육 면양에서는 단미(斷尾, docking)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면양에 가까운 뿔 · 두부 · 체형과 함께 짧은 꼬리가 표현된 경우에는 단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서로 결합하여 판정한다. 뿔과 두부를 양류 판별의 중심으로 삼고, 체형 · 수염 · 꼬리를 함께 검토한다. 자세는 정지형 · 주행형 등의 동세를 보고 구분하며, 주된 관찰 방향은 정면 · 측면 · 방향 비고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조형 방식은 평면적 또는 입체적 표현 여부를 검토한다. 부분형이라도 말린 뿔과 두부의 결합이 분명하고 다른 유제류와 구분되는 경우는 '양류 형상'으로 판정한다. 세부 특징이 충분한 자료에서는 면양 또는 염소에 가까운 형태를 함께 기술하고, 그 밖의 자료는 양류 또는 양 형상이라는 범주로 정리한다. 판정 등급은 〈표 1〉의 판별 요소와 〈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표 1 양류 형상 판별 및 표현 분석 기준

판별 요소	관찰 항목	판정에서의 비중	해석상 주의점
뿔	말림 · 곡률 · 진행 방향 · 분지 여부 · 두부와의 결합	최우선 핵심 요소	고리형 · 나선형 말림은 양류 판별의 강한 단서이며, 사슴 · 가젤류와 비교하여 판정
두부	주둥이, 귀, 수염 표현, 안면 비례	핵심 보조 요소	부분형에서 특히 중요하며 수염은 염소 판별에 참고
체형	몸통 두께, 목 · 사지 비례, 등선 · 복부선	보조 요소	면양 · 염소 · 야생 양류의 비교에 활용
꼬리	길이, 방향, 생략 · 파손 여부, 단미 가능성	보조 요소	다른 특징과 결합하여 사용
자세	정지형 · 주행형 등 동세	표현 분석 요소	동세와 착장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세를 검토
주된 관찰 방향	정면 · 측면 · 방향 비고정, 두부의 좌향 · 우향	표현 분석 요소	기물의 주된 관찰면과 형상의 지향 관계를 검토
조형 방식	평면적 · 입체적 표현	표현 분석 요소	기물 구조와 형상 구성의 관계를 검토
제작 · 사용 방식	표현 범위, 기물과 형상의 결합 방식, 착용 · 부착 구조	맥락 판단 요소	형상의 인식 방식과 사용 맥락을 파악하는 데 활용

이 기준에 따른 판정 등급은 네 단계로 구분한다(표 2).

표 2 양류 형상 판정 등급

판정 등급	적용 기준	논증에서의 활용
양류 형상	뿔과 두부의 결합이 명확하여 다른 동물 형상과 구분되거나, 체형 · 수염 · 꼬리 등 복수의 형태적 요소가 함께 확인되어 양류적 인식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	중심 분석 자료
양류 가능성 높음	뿔과 두부 등 핵심 요소는 분명하나, 보존 상태나 부분형의 표현 범위로 인해 체형 · 꼬리 등 비교 정보가 부족한 경우	중심 자료로 활용하되 표현상 신중히 기술
양류 가능성 있음	일부 요소만 양류적이며 유제류 일반 또는 복합 형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교 자료로 활용
판정 유보	자료 상태나 보고 정보가 부족하여 안정적 판정이 어려운 경우	핵심 논거에서 제외하거나 각주 · 표에서만 언급

앞서 언급한 비교 자료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유적을 살펴볼 수 있다. 대전자 집단은 유목문화의 전통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정주화가 진행된 유목계 사례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순생동물 가운데 양류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돼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본고의 주요 대상 문화와 생업 환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김동일 2023, 90쪽; 김동일 2026, 13쪽).

이 유적에서는 양형장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전자 유적에서는 양류의 순생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반면 돼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양형장식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본고의 주요 자료군과 대비된다. 다만 순생동물의 구성이 실제 사육동물의 비중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형장식의 부재만으로 양류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즉, 대전자 유적은 유목계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더라도 생업 환경과 동물 형상 장식의 선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토하는 비교 사례로 활용한다.

Ⅲ. 자료 검토와 도상 분석

1. 카라숙 청동기 자료 검토

카라숙 청동기는 남부 시베리아 카라숙문화에서 발달한 청동기를 지칭하며, 카라숙문화의 범주와는 별개로 중국 동북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인된다(강인욱 2009, 22쪽). 카라숙 청동기에는 여러 특징적인 기종이 있지만, 그중 짐승머리의 자루 끝 장식이 있는 동검과 동도가 대표적이다(강인욱 2009, 22쪽). 이러한 카라숙 청동기 자료가 중국 북부의 유목문화 권역에서 다수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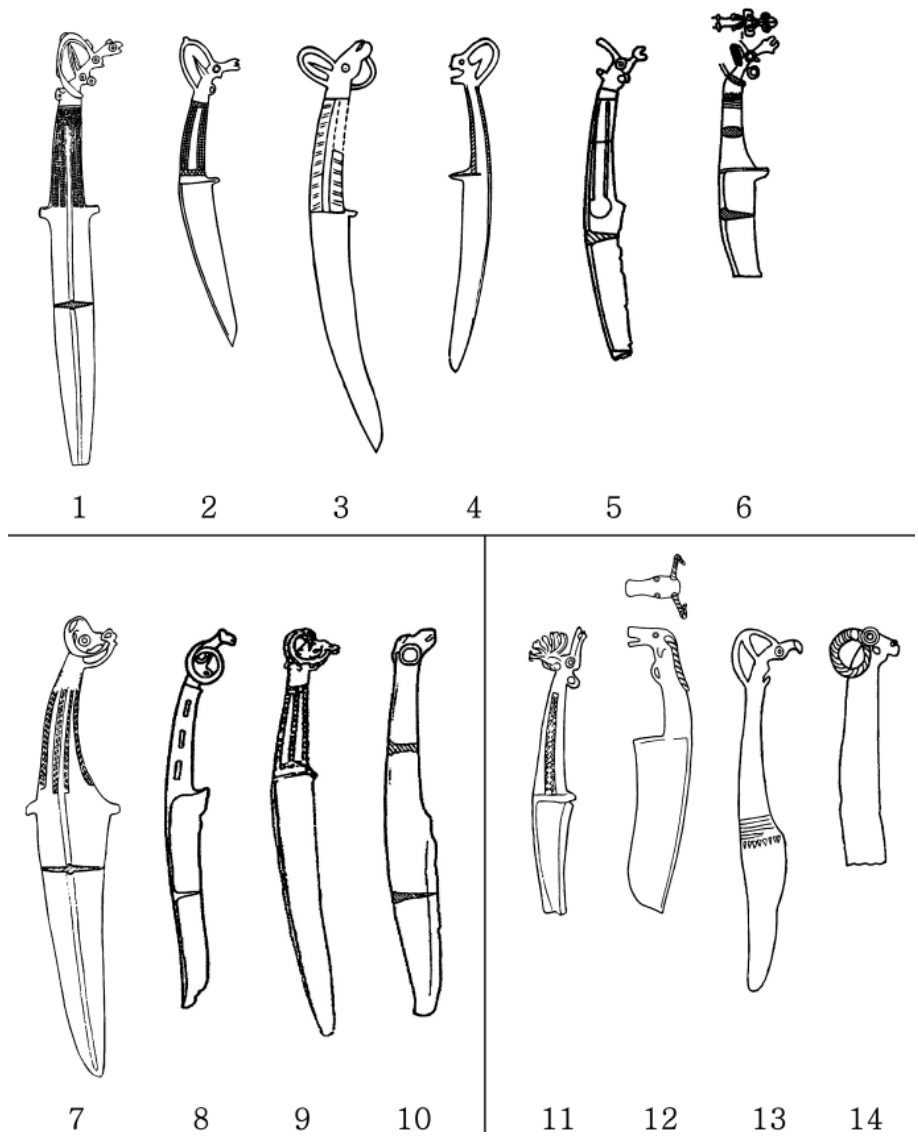
하북성(河北省)에서는 장가구시(張家口市)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1점(그림 1:1)과 청룡만족자치현(靑龍滿族自治縣) 팔도하향(八道河鄕) 초도구촌(抄道溝村)에서는 일괄 발견된 청동기 가운데 양류적 특징을 보이는 자루 끝 장식 2점이 확인되었다(그림 1:2 · 7). 섬서성(陝西省)에서는 수덕현(綏德縣) 언두촌(堰頭村) 상대청동기교장(商代靑銅器窖藏)에서 1점(그림 1:3)이 출토되었다. 하남성(河南省)에서는 안양시(安陽市) 소둔촌(小屯村) 은허(殷墟) 부호묘(婦好墓)에서 1점(그림 1:4)이 출토되었다. 요령성(遼寧省)에서는 건평현(建平縣) 이십가자진(二十家子鎭) 조양산(朝陽山)에서 1점(그림 1:5)과 법고현(法庫縣) 정가방향(丁家房鄕) 만류가촌(灣柳街村)에서 1점(그림 1:6)이 발견되었다.

이 사례들은 기존 보고에서 사슴(鹿)이나 용(龍) 형상으로 판정된 경우가 다수이다. 본고에서는 뿔과 두부의 표현을 중심으로 기존 판정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기 카라숙 청동기의 일부 자료에서는 뿔과 두부의 특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사슴의 녹각은 여러 갈래로 분지되므로, 두부와 결합된 단일 고리형 구조와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 용으로 판정된 일부 자료에서도 두부에 하나의 고리가 결합된 형태가 확인되며, 고리의 일부 표현은 양류의 말린 뿔을 연상시킨다. 한편, 사슴 형상의 비교자료로는 미누신스크박물관 소장품(그림 1:11)을 들 수 있다.

다른 비교 사례로 하북성 승덕시(承德市) 흥륭(興隆) 소하남(小河南) 교장 출토품(그림 1:12)은 뿔의 휘어지는 방향과 형태가 몽골가젤(Procapra gutturosa)이나 프르제발스키가젤(Procapra przewalskii)에 부합하며, 두 종 모두 중국에 분포하는 원령속(Procapra)의 가젤류이다. 이와 함께 과거 프르제발스키가젤의 아종으로 구분되었던 P. p. diversicornis 역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P. p. diversicornis는 승명아종[3]에 비해 뿔이 길고 가늘며 좌우로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여, 해당 도상의 뿔 형태와 유사성이 높다. 즉, 이 자료의 뿔 형태는 실제 가젤류의 뿔 형태와 비교적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리고 〈그림 1:1~6〉의 사례들은 자루 끝에 동물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고, 얼굴에서 시작된 고리가 하나 달려 있다. 고리 자체는 기물의 구조적 요소이지만, 일부 사례에서 말린 뿔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나타나므로 양류적 도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면, 〈그림 1:1~6〉의 사례는 기존의 사슴이나 용 판정에서 벗어나 양류적 특징을 지닌 형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개별 자료의 판정 등급은 〈표 3〉과 같다.

3) 승명아종(承名亞種, nominate subspecies)은 어떤 종을 여러 아종으로 나눌 때, 그 종의 기준표본(type specimen)을 포함하는 아종을 지칭한다.



1.장가구시 2 · 7.청룡 초도구 3.수덕 언두 상대 청동기 교장 4.안양 은허 부호묘 5.건평 이십가자 조양산 6.법고 만류가 8.영석현 정개촌 상대묘지 M2 9.임동 탑자구 10.마니한 오십가자 11 · 13.미누신스크박물관 소장품 12.흥륭 소하남 14.표본30(G11) (1~10.동북아시아 출토 도검 자료 11~14.참고 자료)

그림 1 카라숙 청동기 양형 도검 및 참고 자료

〈그림 1:1~6〉과 같은 단일 고리형 자루 끝 장식은 중국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미누신스크박물관 소장품(그림 1:13)은 유사한 두부와 뿔 표현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3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양형장식 교차 분석표

유적	수량	양류 판정	청동기 계통	연대	지역	기종	출토 맥락	신뢰도	출전
은허 부호묘	1	가능성 있음	카라숙 청동기	기원전 12~11세기	하남 안양	동도 자루 끝 장식	무덤 출토	A	中
초도구	1	양류 형상	상동	상동	하북 청룡	동검 자루 끝 장식	교장 출토, 세부 정보 부족	B	河
초도구	1	가능성 있음	상동	상동	하북 청룡	동도 자루 끝 장식	상동	B	河
정개촌 M2	1	양류 형상	상동	상동	산서 영석	상동	무덤 출토	A	山
언두 교장	1	가능성 있음	상동	상동	섬서 수덕	상동	교장 출토, 세부 정보 부족	B	黑
장가구시	1	가능성 있음	상동	상동	하북 장가구	동검 자루 끝 장식	출토 맥락 파악 불가	C	邵
만류가	1	가능성 있음	상동	상동	요령 법고	동도 자루 끝 장식	채집품	C	鐵
탑자구	1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내몽고 파림좌기	상동	회수품	C	王
오십가자	1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내몽고 적봉	상동	출토 맥락 파악 불가	C	邵
이십가자 조양산	1	가능성 있음	상동	상동	요령 건평	상동	출토 맥락 파악 불가	C	建
대합파제랍 M1	1	가능성 높음	상동	기원전 9~8세기	내몽고 오한기	상동	무덤 출토	A	邱
소흑석구 92NDXA II M14	1	가능성 높음	하가점 상층문화	상동	내몽고 영성	비녀 끝 장식	상동	A	內
나소대	불명, 복수	가능성 높음	상동	상동	내몽고 영성	용도 미상 장식	출토 맥락 파악 불가	B	동
남산근 M101	5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내몽고 영성	패식	무덤 출토	A	遼
옥황묘 YYM300	1	가능성 높음	옥황묘 문화	기원전 7~6세기	북경 연경	단추 장식	상동	A	北1

유적	수량	양류 판정	청동기 계통	연대	지역	기종	출토 맥락	신뢰도	출전
옥황묘 YYM13	45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북경 연경	요대장식	상동	A	北1
옥황묘 YYM212	73	양류 형상	상동	기원전 6~5세기	북경 연경	상동	상동	A	北1
옥황묘 YYM227	29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북경 연경	상동	상동	A	北1
옥황묘 YYM236	16	양류 형상	상동	상동	북경 연경	상동	상동	A	北1
용경협 M36	불명, 복수	가능성 높음	상동	상동	북경 연경	단추 장식	상동	A	北2
서강	1	가능성 있음	사정문화	기원전 6~4세기	감숙 영창	상동	채집품	C	甘

주: '청동기 계통'은 유물 자체의 형식적 계통 또는 해당 고고문화에서 사용된 청동기 전통을 지칭한다. 카라숙 청동기의 경우 출토 유적의 문화적 귀속과 유물의 계통을 구분하였다. 또한, 출전은 中=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1980; 河=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2; 山=山西省考古研究所 · 靈石縣文化局 1986, 山西省考古研究所 2006; 黑=黑光 · 朱捷元 1975, 綏德縣博物館 1982; 邵=邵國田 1993; 鐵=鐵嶺市博物館 1990; 王=王未想 1994; 建=建平縣文化館 · 朝陽地區博物館 1983; 邱=邱國彬 1996; 內=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동=동북아역사재단 2007; 遼=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 ·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北1=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北2=北京市文物研究所 1994; 甘=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현재 자료에서는 단일 고리형 두부 표현과 좌우의 말린 뿔을 명확하게 드러낸 양두형이 함께 확인된다. 두 형식은 도검 자루 끝에 두부를 장식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양류적 특징이 표현되는 방식과 형상의 명료함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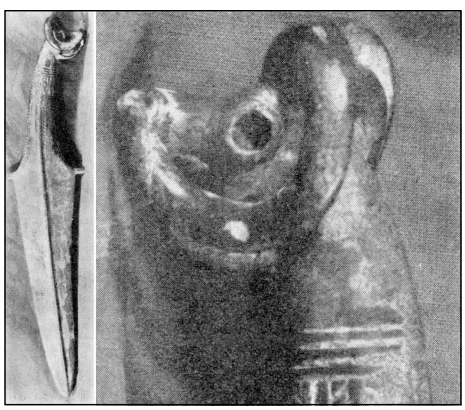


그림 2 초도구 출토 동검

청룡만족자치현 팔도하향 초도구촌에서 함께 발견된 자료(그림 1:7)는 앞서 살핀 사례보다 양의 특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사진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개의 뿔이 원형으로 말려서 얼굴 방향을 향하고 있다(그림 2). 두부만 표현되어 있어 전신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뿔의 형태나 수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양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같은 특징을 지닌 사례로 산서성(山西省) 영석현(靈石縣) 정개촌(旌介村) 상대묘지 2호 무덤 출토품(그림 1:8)과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파림좌기(巴林左旗) 임동진(林東鎭) 탑자구촌(塔子溝村)에서 발견된 1점(그림

1:9)이 있다. 이 밖에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자료 가운데 鄭紹宗(1994)이 '표본 30(G11)'으로 제시한 사례(그림 1:14)가 있다.

출토 맥락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지만, 형상은 앞서 살핀 정개촌 M2와 탑자구 자료와 같은 양두형 자루 끝 장식에 속한다. 이상의 자료는 카라숙 청동기 가운데 말린 뿔과 두부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양류 형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례군이다.

또한, 현재까지 같은 표현을 보이는 다른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내몽고자치구 적봉시(赤峰市) 오한기(敖漢旗) 마니한향(瑪尼罕鄕) 오십가자촌(五十家子村)에서 발견된 1점(그림 1:10)도 양의 뿔을 형상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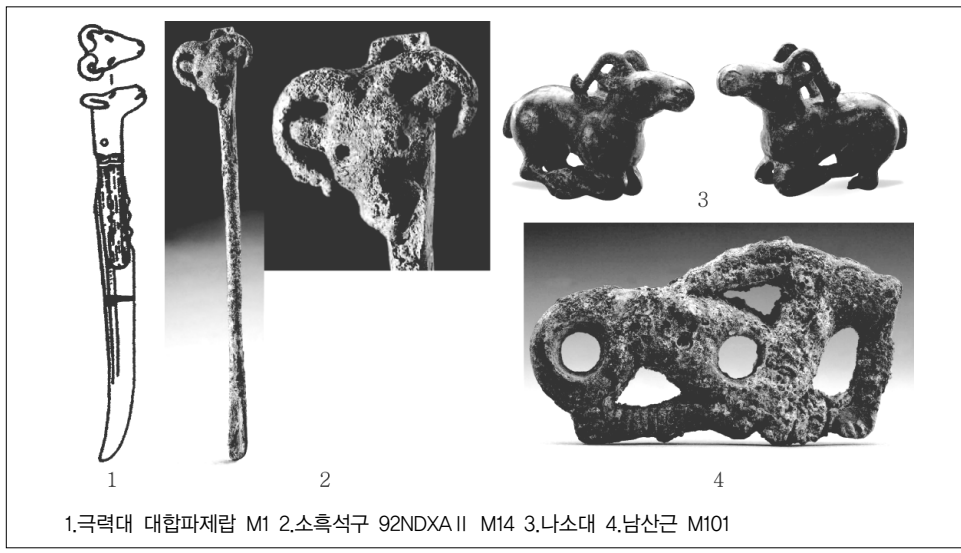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이 사례들을 대체로 상대(商代) 후기부터 서주(西周) 전기 사이의 자료로 분류하며,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청동기 사례 중 북경 및 요령지역 출토품을 카라숙 청동기의 영향이라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강인욱 2009). 현재 확인되는 초기 양류 형상은 카라숙 청동기의 자루 끝 장식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중국 북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자루 끝 장식이 확인된다는 점은 카라숙 청동기의 이동과 함께 양류적 특징을 지닌 두부 표현도 넓은 지역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카라숙 청동기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류적 동물 형상이 동도 · 동검과 같은 도검류의 말단부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는 비녀 끝 장식, 패식, 단추 장식, 요대장식처럼 인체나 의복, 허리띠와 직접 관련되는 착용 장식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구의 끝부분에 동물 형상을 부착하여 기물의 시각적 효과를 강화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2. 하가점상층문화 자료 검토

하가점상층문화 단계의 양형장식은 카라숙 청동기 자료와 달리 기종과 표현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주요 자료는 극력대 대합파제랍 1호 무덤 출토 동도, 소흑석구 유적 92NDXAⅡM14 출토 비녀 끝 장식, 나소대 유적 출토 전신형 장식, 남산근 유적 M101 출토 패식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유목문화에서 양류적 동물 이미지가 서로 다른 장식 매체에 적용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가점상층문화 자료에서는 앞선 카라숙 청동기의 형식을 직접 이어받은 도구 말단 장식과 그 이후의 장식 전통 속에서 형성된 여러 기종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직접 형식 관계가 확인되는 자료는 카라숙 청동기와 비교하고, 다른 장식은 각 문화의 기종과 표현 방식 자체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극력대 대합파제랍 M1 2.소흑석구 92NDXAⅡ M14 3.나소대 4.남산근 M101

그림 3 하가점상층문화의 양형장식

오한기 극력대향(克力代鄕) 대합파제랍(大哈巴齊拉) 1호 무덤 출토품(그림 3:1)(1점)은 기존의 카라숙 청동기와 마찬가지로 동도 끝에 양의 머리만 장식된 형태이다. 카라숙 청동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두부와 뿔이 강조되었지만, 뿔의 말림 구간이 비교적 짧게 표현되었다. 체형 · 꼬리 등 보조 형태 요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양류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다. 또한, 대합파제랍 1호 무덤은 하가점상층문화에 속하며, 이 문화의 청동기에는 드보르쪼이 유형과 관련된 요소도 함께 확인된다(金東一 2018, 203~204쪽). 즉, 이전 요소의 잔존일 가능성도 높지만, 형태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드보르쪼이 유형의 물질자료가 하가점상층문화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카라숙 청동기가 재차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소흑석구 유적 92NDXAⅡM14 출토품(그림 3:2)(1점)은 두부와 뿔이 강조된 비녀 끝 장식이다. 이 자료는 전신을 표현하기보다 머리 부분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부분형 자료로, 양류적 인식이 뿔과 두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압축된 표현으로 인해 세부 형태의 비교가 제한되고 체형 · 꼬리 등 보조 형태 요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양류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다. 이 자료의 의미는 양류적 이미지가 머리 장식 또는 착장 관련 기종에 선택되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대합파제랍 자료와 소흑석구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뿔이 앞선 카라숙 청동기보다 짧게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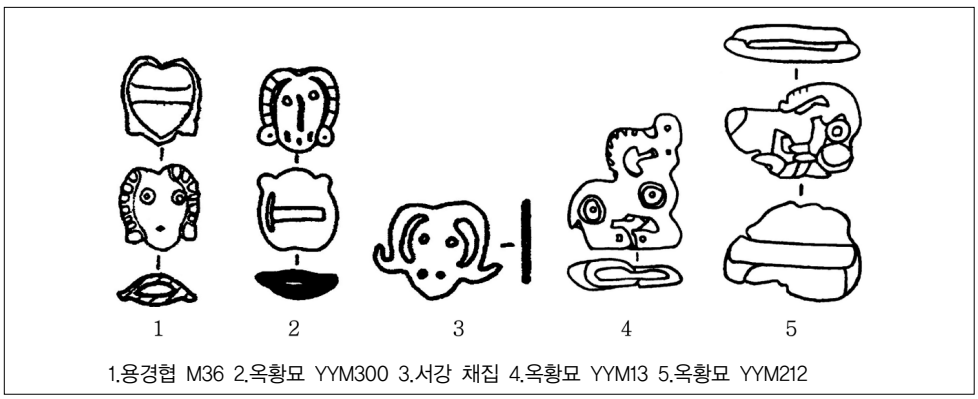
나소대 유적 출토 전신형 장식(그림 3:3)(수량 불명)은 소흑석구 자료와 달리 몸체와 다리, 꼬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신형 사례이다. 전신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굽은

뿔과 짧은 꼬리, 동세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도상 분석상 중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장착 방식과 사용 맥락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착용 장식이나 부착 장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남산근 유적 M101 출토 패식(그림 3:4)(5점)은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요한 출토 사례이다. 이 자료는 무덤 출토품이고, 기종은 패식이며 목에 걸어 사용한 착장 장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신형으로 표현되어 뿔, 체형, 자세, 꼬리 등을 함께 살필 수 있다. 특히 측면형 전신과 주행형 자세, 그리고 형상의 외곽선이 곧 기물의 윤곽이 되는 구성은 초원계 동물 형상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도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남산근 M101 자료를 '양류 형상'으로 판정하며, 그 의의는 양류적 동물 이미지가 패용 가능한 청동장식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 있다.

3. 옥황묘문화 자료 검토

옥황묘문화의 편년과 전개 과정은 필자의 선행 연구를 따른다(김동일 2019a). 이 문화 단계의 양형장식은 기북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군이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주요 자료는 용경협 M36 출토 단추 장식, 옥황묘 YYM300(1점) 출토 단추 장식, 그리고 옥황묘 YYM13(45점) 및 YYM212(73점) · 227(29점) · 236(16점) 관련 요대장식이다(그림 4:1 · 2 · 4 · 5). 이 자료들은 대체로 기원전 7~5세기에 속하며, 하가점상층문화 자료와 달리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처럼 착장과 관련된 기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1.용경협 M36 2.옥황묘 YYM300 3.서강 채집 4.옥황묘 YYM13 5.옥황묘 YYM212

그림 4 옥황묘문화와 사정문화의 양형장식

용경협 M36 출토품은 소형 단추 장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보고에서는 양형 또는 양류적 동물 형상으로 다루어졌으며, 굽은 뿔과 소형 동물 형상의 윤곽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를 '양류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다. 그 의미는 특정 종 판별보다, 기북지역

옥황묘문화권에서 양류적 이미지가 의복이나 장비에 부착될 수 있는 소형 장식에 채택되었다는 점에 있다.

옥황묘 YYM300 출토 단추 장식도 같은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추 장식은 기종상 의복이나 장비의 결속 · 부착 구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 역시 양류적 특징을 보이지만, 소형 장식이라는 특성상 세부 해부학적 요소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양류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하며, 용경협 M36과 함께 기종과 구조상 소형 부착 장식으로 분류한다.

옥황묘 YYM13 및 YYM212 · 227 · 236 관련 요대장식은 옥황묘문화 자료 가운데 착장 체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들은 단일한 형식이 아니다. 필자의 선행 분류에 따르면 양류 형상 요대장식은 고개를 든 자세에 중앙을 상하로 관통하는 YYM13 출토품의 형태와, 고개를 숙인 자세에 배면에 가로지르는 뉴를 둔 YYM212 출토품 형태로 나누어진다(金東一 2018, 41 · 43쪽). 두 형태는 고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중앙 관통형(그림 4:4)은 앞뒤 양면에 양이 조각되어 착용자의 좌우 어느 쪽에서도 형상이 성립하는 반면, 배면 뉴형(그림 4:5)은 정면 한 방향에서만 형상이 노출된다.

두 형태 모두 굽은 뿔과 측면형 몸체를 갖추어 양류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며, 다리 사이와 뿔 안쪽에 관통 공간이 형성되어 몸체와 다리, 뿔의 윤곽이 강조된다. 그러나 자세는 다르게 나타난다. YYM13 출토품은 달리는 형상의 동물문 요대장식에 포함되나, YYM212 출토품은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하고 구체적 사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金東一 2018, 146쪽).

이에 대해서는 출토 수량과 다른 동물 형상 요대장식의 배열 사례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YYM212 출토품은 73점, YYM227 출토품은 29점에 이르러 허리선 이외의 배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수량이며, 옥황묘문화의 달리는 동물 형상 요대장식 중 배열이 확인된 경우는 허리선에서 대퇴부로 이어지는 종렬로 배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金東一 2018, 141~142 · 150쪽) 이들 역시 대퇴부에 배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YYM13 출토품의 착장 위치는 형식별 배치 규칙에서, YYM212 계열의 착장 위치는 수량과 유사 배열 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추정한다.

옥황묘문화 자료의 특징은 하가점상층문화 자료와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비녀 끝 장식, 전신형 장식, 패식 등 서로 다른 장식 매체에 양류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반면, 옥황묘문화에서는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처럼 의복 · 장비 · 허리띠와 관련된 기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단추 장식에서는 소형화와 부착 구조로 인해 세부 표현이

단순화되는 반면, 요대장식에서는 전신 측면형이 확인되며 일부 형식에서는 주행형 자세가 결합하여 양류적 이미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시화된다.

옥황묘문화의 동물 형상 요대장식은 전체 착장 체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필자의 공동출현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춘추 후기 전반부터 요대장식이 중심 결합의 주요 기종으로 자리 잡으며, 전기 유형에서는 사슴 형상 Ca형 요대장식, 후기 유형에서는 말 형상 D형 요대장식이 각각 중심 결합의 표지유물로 나타난다(김동일 2026). 양류 형상 요대장식은 같은 요대장식 체계에 포함되지만 표지유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중심 결합에 연결된 부속 항목으로 확인된다.

서북지역 자료는 양형장식의 분포 범위와 표현 방식의 변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검토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대표적 사례는 감숙 영창 일대의 서강 관련 자료로 사정문화와 관련되는 기원전 6~4세기경의 단추 장식으로 보고되어 왔다(그림 4:3). 이 자료는 양류적 동물 형상을 지닌 소형 단추 장식(1점)이라는 점에서 기북지역 옥황묘문화의 단추 장식과 비교될 수 있다.

4. 형태와 기종의 대응

양형장식의 형태는 표현 범위와 주된 관찰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체 여부는 조형 방식으로 별도 기술한다. 표현 범위는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하나의 윤곽 안에 구성된 전신형과 두부 · 뿔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분형으로 나뉜다. 주된 관찰 방향은 측면 · 정면 · 방향 비고정으로 구분한다. 방향 비고정은 측면이나 정면 가운데 어느 한 방향만을 주된 관찰면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에서 방향 비고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입체적으로 조형되어 있다.

두 기준을 교차하면 전신 측면형 · 전신 방향 비고정형, 부분 측면형 · 부분 정면형 · 부분 방향 비고정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전신 정면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표 4).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 중 방향 비고정형은 모두 입체 표현이므로, 필요한 경우 '방향 비고정형(입체)'으로 병기한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개별 자료의 문화 · 연대 · 신뢰도 · 판정은 〈표 3〉을 참조할 수 있다.

패식은 목에 걸어 착용자의 정면에 놓인다. 요대장식은 착장 위치에 따라 형상의 노출 방향이 달라지며, 이는 배치 규칙에서도 확인된다. 옥황묘문화의 요대장식은 일반적으로 허리선과 대퇴부에 나누어 분포하지만, 달리는 형상의 동물문 요대장식만은 허리띠 자체에는 사용되지 않고 허리띠에서 종렬로 내려가면서 대퇴부 상단에만 배열된다(金東一 2018,

150쪽). 나아가 대퇴부에 배열되는 육상 동물문은 정면 또는 측면으로 달리는 형상이며, 뉴의 방향 자체가 대퇴부 배열을 전제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달리는 형상은 착장 위치가 정해진 뒤에 단순히 선택된 것이라기보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착용 상태를 고려하여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퇴부에 배치되는 전신 측면형은 장식면의 크기와 함께 착용자의 움직임 속에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측면 윤곽과 주행 자세가 드러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부분 정면형은 비녀 끝 장식과 단추 장식처럼 주된 관찰면이 한쪽으로 모이는 기종에서 확인된다. 비녀 끝 장식은 두발 속에 삽입된 뒤 말단이 드러나고, 단추 장식은 의복이나 장비의 표면에 부착된다. 두 기종에서는 몸체 전체를 전개하기보다 양류를 식별하게 하는 두부와 뿔이 주된 관찰면에 집중되어 표현된다.

부분 측면형인 카라숙 청동기 도검 자루 끝 장식은 조건이 다르게 확인된다. 도검은 도집이나 검집에 꽂으면 자루와 말단만 노출되므로, 기물의 측면에서 두부만 관찰된다. 이 자료는 신체보다 기물의 축에 결합된 장식이므로, 두부 중심의 부분 측면형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신 방향 비고정형(입체)은 관찰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 대신, 현 자료만으로는 인체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즉, 나소대 자료는 용도 미상 자료로 다루어지고 장착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 방향 비고정형(입체)은 몸체 전체가 입체화된 전신 방향 비고정형(입체)과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두부와 뿔 중심의 부분 표현 가운데 뿔이 좌우로 돌출되거나 입체적으로 처리된 자료를 부분 방향 비고정형(입체)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각 형태는 기종별 취향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형상이 놓이는 대상과 주된 관찰 방향이 형상 구성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

표 4 표현 범위와 주된 관찰 방향별 출토 사례

	측면형	정면형	방향 비고정형
전신	전신 측면형 사례: 남산근 M101, 옥황묘 YYM13 · 212 · 227 · 236	—	전신 방향 비고정형 사례: 나소대
부분	부분 측면형 사례: 장가구시, 초도구(그림 1:2), 언두 교장, 은허 부호묘, 이십가자 조양산, 만류가	부분 정면형 사례: 소흑석구, 용경협 M36, 옥황묘 YYM300, 서강	부분 방향 비고정형 사례: 초도구(그림 1:7), 정개촌 M2, 탑자구, 오십가자, 대합파제랍 M1

주: 본고의 방향 비고정형 자료는 모두 입체적으로 조형되어 있다.

이 대응은 양류 형상의 계보적 단계나 종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양류 형상에 고유한 조형 규칙이라기보다, 각 기종에서 이미 사용되던 동물 형상 표현 규칙 속에 양류 이미지가 편입되면서 장식면과 장착 구조에 맞추어 조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입체 표현이라고 해서 실제 동물의 사실적 재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물 구조와 주조 조건에 따라 형상이 단순화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표 3〉의 자료에 적용하여 장착 구조에 따라 재배열하면, 〈표 5〉와 같은 몇 가지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첫째, 형태가 장착 구조와 대응한다. 전신 측면형은 착용자의 정면과 측면에 지속 노출되는 패식 · 요대장식에서, 부분 정면형은 노출 방향이 고정된 비녀 끝 장식 · 단추 장식에서 확인된다. 도구 말단에 결합되는 자루 끝 장식에서는 부분

표 5 양형장식의 장착 구조별 표현 방식

장착 유형	출토지	기종	형태	신체와의 관계
①–1a 무기물 도구 부착	초도구(그림 1:2), 언두교장, 은허 부호묘, 이십가자 조양산, 만류가	동도 자루 끝 장식	부분 측면형	도구 말단에 결합, 도집 착장 시 말단만 노출
①–1b 무기물 도구 부착	정개촌 M2, 탑자구, 오십가자, 대합파제랍 M1	동도 자루 끝 장식	부분 방향 비고정형(입체)	도구 말단에 결합, 도집 착장 시 말단만 노출
①–2a 무기물 도구 부착	장가구시	동검 자루 끝 장식	부분 측면형	도구 말단에 결합, 검집 착장 시 말단만 노출
①–2b 무기물 도구 부착	초도구(그림 1:7)	동검 자루 끝 장식	부분 방향 비고정형(입체)	도구 말단에 결합, 검집 착장 시 말단만 노출
②–1 유기물 도구 부착	옥황묘 YYM300, 용경협 M36, 서강	단추 장식	부분 정면형	의복 · 장비에 부착, 정면 노출
②–2a 유기물 도구 부착	옥황묘 YYM13	요대장식	전신 측면형	중앙 상하 관통으로 허리띠에 고정, 앞뒤 양면 시문, 대퇴부에서 달리는 형상 노출
②–2b 유기물 도구 부착	옥황묘 YYM212 · 227 · 236	요대장식	전신 측면형	배면 횡관뉴로 허리띠에 고정, 정면만 시문, 고개 숙인 자세, 대퇴부 배열 추정
③ 말단부 착용	소흑석구 92NDXA II M14	비녀 끝 장식	부분 정면형	두발 속에 삽입, 말단이 한 방향만 노출
④ 패용	남산근 M101	패식	전신 측면형	목에 걸어 착용, 달리는 형상이 정면에 노출
⑤ 용도 미상	나소대	용도 미상 장식	전신 방향 비고정형(입체)	착용 여부 판단 불가, 장착 구조 확인 불가

주: 본 표에서 '무기물 도구'와 '유기물 도구'는 양형장식 자체의 재질이 아니라 장식이 결합되는 대상의 재질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본 표는 〈표 3〉의 자료를 장착 구조에 따라 재배열한 것으로, 자료별 상세 정보는 〈표 3〉을 따른다.

측면형과 부분 방향 비고정형(입체)이 함께 확인되며, 전신 방향 비고정형(입체)은 현 자료에서 장착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용도 미상 자료 또는 인체 밖 기물에 결합된 비교 사례와 관련된다.

둘째, 양류 판정 등급은 장착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각 자료에서 확인되는 도상 요소의 명확성과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전신 측면형인 남산근 M101 패식과 옥황묘 요대장식은 뿔 · 두부 · 체형 · 꼬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양류 형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전신 표현 여부가 '양류 형상' 판정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초도구(그림 1:7) · 정개촌 M2 · 탑자구 · 오십가자처럼 부분형이라도 뿔과 두부의 결합이 명확하고 다른 유제류와 구분되는 특징이 충분한 경우에는 '양류 형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반면, 대합파제랍 M1 · 소흑석구 92NDXAⅡM14 · 용경협 M36 · 옥황묘 YYM300처럼 뿔과 두부에서 양류적 특징이 확인되지만, 세부 형태의 비교 정보와 체형 · 꼬리 등의 보조 요소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양류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하였다.

5. 도상 요소의 분석

1) 뿔과 두부 〈표 1〉에서 핵심 요소로 설정한 바와 같이, 양형장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뿔과 두부이다. 뿔은 양류적 동물 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한 도상 요소이며, 두부는 뿔이 어떤 동물 형상의 일부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뿔과 두부는 '양류 형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일 수는 있어도, 면양 · 염소 · 산양 · 아르갈리양 등 생물학적 종을 확정하는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양류에서 유사한 뿔과 두부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부분형 자료에서는 체형 · 꼬리 등 다른 판별 요소를 함께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라숙 청동기의 자루 끝 장식에서는 두부와 결합된 단일 고리형과 좌우의 말린 뿔이 분명한 양두형이 함께 확인된다(그림 1 · 2 참조). 단일 고리형은 고리의 표현을 양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양류 가능성 있음'으로 판정한 반면, 양두형은 말린 뿔과 두부의 결합이 명확하여 '양류 형상'으로 판정하였다. 두 형식 모두 전신을 표현하지 않고 두부 중심의 형상을 도검 말단에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초원 서부의 사례와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기원전 9세기 후반의 툰누그 1호 쿠르간에서는 양류 형상으로 판정된 2점과 양류 가능성이 제기된 1점 등 총 3점이 보고되었으며, 보고자들은 이들 자료에서 두 계통의 표현 전통을 구분하였다. 고리 위에 세

운 청동 전신상은 아르잔 1호 쿠르간의 숫양 형상과 같은 전통에 속하는 '아르잔–마예미르' 양식으로 파악되며, 무덤에서 출토된 골제 말단 장식은 이보다 추상적이고 눈 주위를 호선 또는 뿔이 감싸는 도상 특징을 지닌다(Sadykov et al. 2025, 1571 · 1579~1580쪽)(그림 5). 후자에서는 굽은 뿔과 두부가 강조되는 반면 몸체는 기물의 축에 맞추어 단순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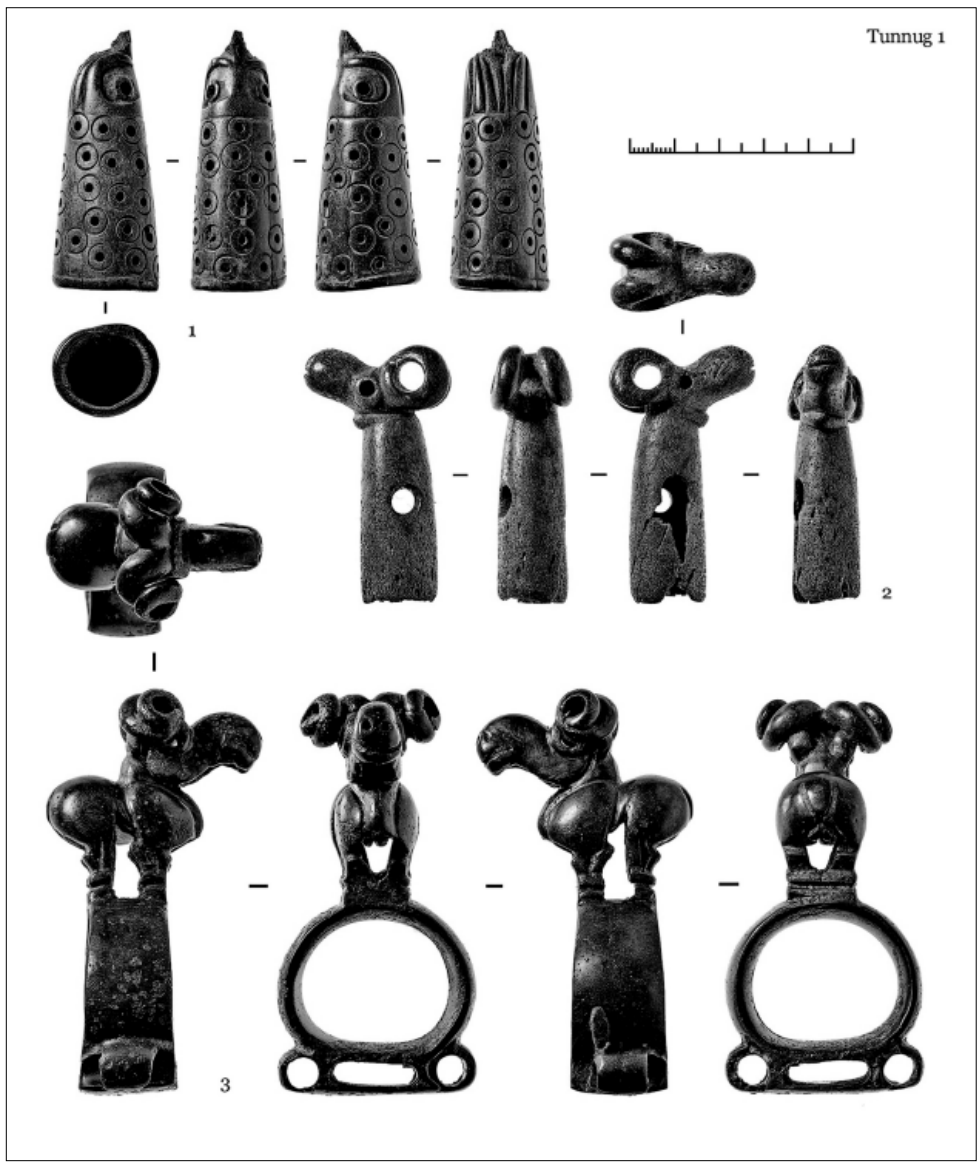


그림 5 툰누그 1호 쿠르간 출토 양류 형상 장식(Sadykov et al. 2025, 1573쪽)

보고자들은 이 '눈 주위 뿔' 모티프가 전 스키타이 단계 내륙아시아의 이른바 카라숙 청동 도자(刀子) 자루 끝 장식 전통에서 이미 확인되며, 남시베리아 · 몽골과 함께 중국 북부에도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adykov et al. 2025, 1571 · 1579 · 1580쪽). 곧 본고의 초도구 동도 자루 끝 장식은 툰누그의 골제 말단 장식에서 보이는 뿔과 두부 중심의 표현 및 말단 장식 전통과 연결되며, 나소대 자료는 툰누그의 청동 전신 숫양처럼 전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면 양류 이미지는 두부와 뿔을 압축하여 기물의 말단에 결합하는 방식과 전신을 독립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초원 서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소흑석구 유적 92NDXAⅡM14 출토 비녀 끝 장식은 두부와 뿔을 형상화한 부분형 자료이다. 이 자료(그림 3:2)는 몸체 전체가 아니라 두부와 굽은 뿔을 중심으로 조형되었으며, 표현된 형태적 특징을 통해 양류적 도상을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양류 형상의 식별에 반드시 전신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경협 M36과 옥황묘 YYM300의 단추 장식(그림 4:1 · 2) 역시 크기가 작아 세부 표현이 단순하지만, 굽은 뿔과 두부의 결합만으로 양류적 인상을 전달한다.

2) 체형과 꼬리 체형과 꼬리는 몸체 전체가 표현된 자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이다. 머리와 뿔만 남은 부분형 자료와 달리, 전신형 자료에서는 몸통의 비례, 등선과 복부선, 다리의 배치와 꼬리 표현을 함께 살필 수 있다.

몸체가 표현된 자료에서는 측면 관찰을 통해 체형을 비교할 수 있다. 나소대 유적 출토 장식은 입체적으로 조형되었지만, 측면에서 몸통의 비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산근 M101 패식과 옥황묘문화의 요대장식은 전신 측면형으로 구성되어 머리와 몸통, 다리, 꼬리의 윤곽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꼬리는 전신형 자료의 판정을 보완한다. 나소대 유적 출토 전신형 장식(그림 3:3)은 뿔과 두부, 체형 등에서 면양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면서도 짧은 꼬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긴 꼬리를 지닌 면양의 단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소흑석구 유적 92NDXAⅡM14 출토 비녀 끝 장식(그림 3:2)에서는 수염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통해 염소에 가까운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하가점상층문화 남산근유형의 집단이 면양과 염소의 특징 모두를 인식하고 형상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면양과 염소를 함께 관리하는 목축 방식도 이러한 도상적 차이를 이해하는 생업적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남산근 M101 패식과 옥황묘문화 요대장식에서도 꼬리가 확인되지만, 자료마다 표현

범위와 보존 상태가 다르므로 자료에 따라 꼬리는 뿔 · 두부 · 체형과 결합하여 판정하는 보조 요소로 활용한다.

Ⅳ. 사용 맥락과 해석

앞서 정리한 장착 유형은 양류 이미지가 어떠한 대상에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도검 자루 끝 장식은 기물에 결합된 장식이며, 비녀 끝 장식 · 패식 · 요대장식은 신체 착장과 연결된다. 단추 장식은 의복 또는 장비에 고정되는 소형 부착품이고, 나소대 전신형 장식은 장착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양류 이미지가 가시화되는 조건과도 연결된다.

무덤 출토 양형장식은 피장자의 생전 사용품뿐 아니라 장송 의례의 맥락에서 선택된 물품일 수 있으며, 매납 상태가 생전의 착용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김동일 2026). 따라서 장식품의 출토만으로 피장자의 신분 · 성별 · 지위 · 집단 정체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유물의 수량을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A · B · C급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여러 시기와 문화에서 양류 이미지가 어떤 기종에 나타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특히 옥황묘문화에서는 동물 형상 요대장식이 착장 체계의 주요 기종을 이루는 가운데, 사슴과 말이 시기별 표지유물로 나타나고 양 형상도 요대장식과 단추 장식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양류가 중심 표지의 동물은 아니었지만, 이미 동물 형상 장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체계 안에서 장식 소재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다른 동물 형상 장식과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호형장식 중 패식은 신분과 소속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검토된 바 있다(김동일 2019b). 그러나 현재 양형장식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상징적 성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전자 유적과의 대비를 고려하면, 양류 이미지의 선택은 유목계에 속한다는 문화적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생업 환경과 장식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북지역의 반유목적 생업에서는 면양 · 염소 · 말 등이 목축의 주요 구성 요소였으며, 양류는 고기와 젖, 피, 가죽, 털, 뼈, 뿔 등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이용되었다(김동일 2021, 89~91쪽; 김동일 2023). 면양의 목축을 위해 염소를 함께 관리하는 목축 방식도 널리 확인된다(김동일 2021, 90쪽).

이러한 환경에서 양류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형태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 또한, 유목 집단이 가축 사육에 필요한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류는 이를 사육하는 집단의 생계와 존속에 밀접하게 관

련된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양류는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생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식되고 그 특징이 형상으로 표현될 만한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북지역의 동물유체에서 면양과 염소가 실제로 확인된다는 점은 청동장식의 양류 이미지와 중요한 접점을 이룬다. 청동장식만으로 사육 자체를 판정할 수는 없으나, 양류와 함께 살아온 목축 환경과 양류적 형상의 선택이 같은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양류 이미지의 경험적 배경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굽은 뿔, 수염, 체형과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동물 인식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옥황묘문화에서는 생활 속에서 익숙한 동물마다 장식 체계 안에서 선택되는 방식과 위치에 차이가 있었다. 사슴과 말 형상 요대장식은 시기별 중심 표지로 선택되었고, 양류는 같은 요대장식과 단추 장식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양류가 목축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식된 동물이면서, 이미 형성된 동물 형상 착장 체계 안에서 특정 기종과 배치 방식으로 다시 선택되었음을 나타낸다.

직접적인 목축 경험은 양류의 형태를 익숙하게 인식하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은허 부호묘와 같이 유목문화로 보기 어려운 문화권에서도 양류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검토되는 카라숙 청동기 계통 자료가 확인된다는 점은 청동기의 이동과 함께 관련 이미지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이미지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수용 · 재구성 방식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반복 선택성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안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제작 전통의 공유이며, 같은 계통의 형식을 여러 제작자가 반복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기술 계보로 용범 설계와 주조 조건의 제약이 특정 도상 구성을 유도할 가능성이다. 셋째는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형식 전달이며, 초원계 문화 사이의 물질 및 관념 교류가 형식의 반복을 만들 가능성이다(金東一 · 楊建華 2020; 김동일 2022).

이 세 설명은 형식의 공유와 반복을 이해하는 데 유효하지만, 기종 구성의 차이를 살피려면 각 문화의 기존 장식 및 착장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외래 도상이 현지의 표현 관습 속에서 선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 최근 연구도 이러한 검토에 참고할 수 있다(Andreeva 2022, 414~415쪽). 실제로 호형장식에서도 서융계통호가 현지 호형장식의 표현 관습에 맞추어 변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김동일 2019b, 41쪽).

이 점을 고려하면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에서 공통적인 양류적 도상 요소가 확인되면서도 기종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각 문화의 기존 장식 및 착장 체계 안에서 양류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작 전통과 기술 계보, 교류 네트워

크에서는 도상 요소의 공유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 기종과 장착 구조에서는 그 이미지가 각 문화에서 구성되고 가시화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살펴볼 문제는 양류 형상이 사용된 기종과 착장 방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이다. 툰누그 1호 쿠르간의 보고자들은 이 유적의 동물양식품이 말단 장식과 단검을 제외하면 모두 마구와 마차 견인 장비에 결부되며, 정교한 동물양식 장식으로 인체를 덮는 관념은 그보다 나중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Sadykov et al. 2025, 1581쪽). 이러한 견해를 동북아시아 양형장식의 시기별 자료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간순으로 보면 기원전 12~11세기경의 카라숙 청동기에서는 양류 형상이 도검의 자루 끝 장식에 집중된다. 기원전 9~8세기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같은 도구 말단형이 계속 사용되는 가운데 비녀 끝 장식 · 전신형 장식 · 패식이 함께 나타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앞선 장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식으로 교체된 모습보다 이전의 도구 말단 장식과 새로운 착장 관련 기종이 함께 존재한다는 데 있다.

기원전 7~5세기 옥황묘문화에서는 단추 장식과 요대장식이 주요 자료가 된다. 이 문화의 복식과 장식 체계에는 드보르쪼이 유형 · 외바이칼 일대에서 이어진 요소와 하가점상층문화 및 낙타량유형을 거친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金東一 2018), 특히 달리는 동물형상 요대장식은 중요한 착장 기종으로 자리 잡는다. 이 환경에서 양류도 요대장식과 단추 장식의 소재로 다시 선택되었다.

이 대응을 기종별로 보면, 양류 이미지는 도구 말단 장식에서 두부와 굽은 뿔을 중심으로 압축되어 기물의 말단을 장식하였다. 비녀 끝 장식과 단추 장식에서는 두발 속에 삽입되거나 의복 · 장비 표면에 부착되는 조건 때문에 몸체보다 두부와 뿔이 남았다. 패식과 요대장식에서는 착장 구조와 노출 방식에 대응하여 몸체 · 다리 · 꼬리가 드러나는 전신 측면형이 확인되며, 남산근 M101 패식과 옥황묘 YYM13 요대장식에서는 주행 자세도 나타난다.

이 차이는 양류 이미지가 하나의 고정된 도상으로 반복된 현상보다, 기종별 장착 구조와 노출 방식에 맞추어 부분 측면형, 부분 정면형, 전신 측면형으로 달리 구성된 현상에 가깝다. 현재 자료에서 관찰되는 시기별 배열과 기종별 표현 방식은 〈그림 6〉처럼 정리할 수 있다.

툰누그 1호 쿠르간의 전신 청동 숫양은 전차 부속으로 추정되며 기물의 진행 방향을 고려한 배치가 논의되고 있다(Sadykov et al. 2025, 1579쪽). 옥황묘문화의 달리는 동물형상 요대장식은 착용자의 대퇴부에 배열되도록 제작되었다. 두 사례는 동물 형상의 방향과 자세를 해석할 때 장식의 결합 대상과 사용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류 이미지 역시 기종이 달라질 때 표현 범위와 관찰 방향이 함께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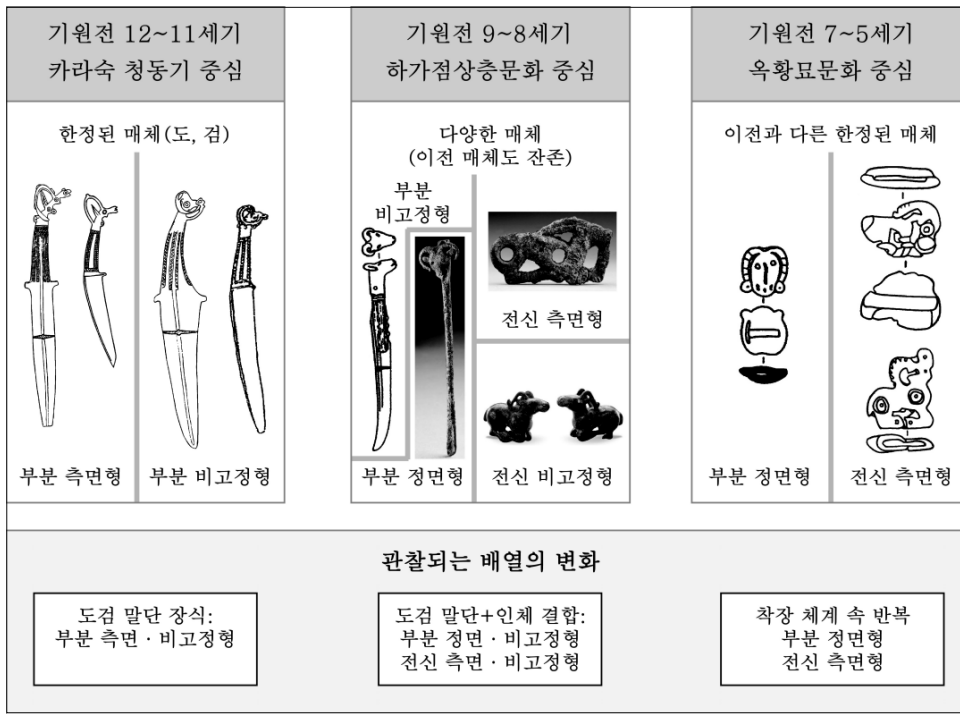


그림 6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양형장식의 시기별 배열과 기종별 표현 방식
주: 지면의 한계상 '방향 비고정형'은 '비고정형'으로 줄여서 표기하였다.

양형장식의 해석에서는 양류가 실제 생업에서 차지한 위치와 그 이미지가 장식 체계에 선택된 방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북지역에서는 양류 목축과 양류 이미지가 같은 시공간에서 확인되고, 굽은 뿔과 두부, 체형과 같은 특징도 청동장식에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상은 목축 생활 속에서 축적된 양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형상 선택의 배경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덧붙여, 본고의 양류 도상 분석은 철기시대 동물투쟁 또는 복합 동물 형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기초가 될 수 있다. 외래 동물양식이 현지에서 다시 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하려면, 결합 이전 단계의 재지 동물 묘사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호형장식에서 재지 호랑이 표현과 외래 형식의 결합이 확인된 것처럼(김동일 2019b), 양류도 뿔과 두부, 체형, 자세의 지역적 표현을 먼저 정리해야 후대 복합 도상 속에서 재지 요소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 집성한 청동기시대 양형장식은 이러한 비교를 위한 선행 자료에 해당한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양형장식을 집성하고, 자료 신뢰도와 도상 판별 기준을 설정한 뒤 문화 · 연대 · 기종 · 출토 맥락 · 장착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양형장식은 넓은 지역에 균질하게 분포하기보다 특정 문화와 기종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양류 이미지가 각 문화의 청동기와 착장 체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양류 형상의 판별에서는 굽은 뿔과 두부의 결합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전신이 표현된 자료에서는 수염, 체형, 꼬리를 함께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유제류와의 구분 가능성도 높아진다. 면양 · 염소 · 야생 양류를 모든 자료에서 세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시기와 지역에서 양류로 인식할 수 있는 뿔과 두부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양류 이미지의 배경에는 실제 인간과 양류의 관계가 있었다. 기북지역의 목축 환경에서는 면양과 염소가 생활의 주요 동물이었으며, 동물유체 자료에서도 두 동물이 확인된다. 양류는 고기와 젖뿐 아니라 털 · 가죽 · 뼈 · 뿔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유목 집단이 가축 사육에 필요한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류는 이를 사육하는 집단의 생계와 존속에 밀접하게 관련된 동물이었다. 그러므로 양류는 단순히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동물이 아니라,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특징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생활 경험은 양류 이미지가 장식의 소재로 선택되는 데 영향을 준 배경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양류 이미지의 반복적인 출현을 해석할 때에는 생업 경험뿐 아니라 청동기와 장식 전통의 이동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카라숙 청동기 계통 자료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양류적 특징을 지닌 형상이 지역 간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전승 경로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한편 대전자 유적처럼 유목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더라도 양형장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목계라는 성격 자체를 양류 이미지의 지속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현재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와 문화에서 양류적 도상 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그 이미지를 담는 기종과 장착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시기별 자료를 종합하면, 양류의 굽은 뿔과 두부, 체형은 반복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그 이미지는 각 문화의 장식 체계 안에서 특정 기종과 신체 위치에 배치되었다. 옥황묘문화에서는 사슴 형상과 말 형상 요대장식이 시기별 표지유물로 선택되었고, 양류는 요대장식과 단추 장식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반복 선택은 양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각 문화의 장식 전통 및 착장 방식과 결합하여 형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동기시대 양류 묘사의 정리는 이후 동물투쟁 및 복합 동물 형상에서 외래 요소와 재지 표현이 결합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양형장식은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에서 인간이 양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물질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가시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동물투쟁 도상의 재지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투고일 2026년 08월 18일 심사완료일 2026년 09월 20일 게재확정일 2026년 09월 22일

引用文獻

인 용 문 헌

| 한국어 |

강인욱, 2009,「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 · 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호서고고학』21, 호서고고학회.

_____, 2010,「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로 동물장식의 유입과정」,『호남고고학보』36, 호남고고학회.

김동일, 2019a,「옥황묘문화의 편년과 전개양상」,『한국상고사학보』105,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19b,「동북아시아 虎形裝飾의 표상과 한반도 출토 虎形帶鉤의 기원 연구」,『고고광장』25, 부산고고학회.

_____, 2021,「청동기시대 기북지역 반유목문화의 개념과 영역-옥황묘문화와 낙타량유형을 중심으로-」,『고고광장』28, 부산고고학회.

_____, 2022,「청동기로 본 중국 동북지역과 기북지역의 교류양상」,『한국고고학보』2022-3, 한국고고학회.

_____, 2023,「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의 생업 경제(下)-몽동지역과 기북 · 기동지역을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74, 호남고고학회.

_____, 2026,「초원 · 접경지대 유목계 문화유형 설정법-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영남고고학』105, 영남고고학회.

동북아역사재단, 2007,『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기』.

정석배, 2000,「'先흉노-스키타이 세계' 小考」,『한국상고사학보』32, 한국상고사학회.

주경미, 2022,「흉노시대 幻想動物文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中央아시아硏究』27-1, 중앙아시아학회.

| 중국어 |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2001,『永昌西崗柴灣崗一沙井文化墓葬發掘報告』, 甘肅人民出版社.

建平縣文化館 · 朝陽地區博物館, 1983,「遼寧建平縣的青銅時代墓葬及相關遺物」,『考古』1983-8.

邱國彬, 1996,「內蒙古敖漢旗大哈巴齊拉墓地調查」,『北方文物』1996-3.

金東一, 2018,『玉皇廟文化青銅器研究』, 吉林大學 考古學院 박사학위논문.

金東一 · 楊建華, 2020,「石板墓文化與中國北方考古學文化的交流及其意義」,『北方民族考古』9, 科學出版社.

引用文獻

인 용 문 헌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小黑石溝: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北京市文物研究所, 1994, 「延慶龍慶峽別墅工程發現的春秋時期墓葬」, 『北京文物與考古』 1994-4.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軍都山墓地一玉皇廟(三)』, 文物出版社.

山西省考古研究所, 2006, 『靈石旌介商墓』, 科學出版社.

山西省考古研究所 · 靈石縣文化局, 1986, 「山西靈石旌介村商墓」, 『文物』 1986-11.

邵國田, 1993, 「內蒙古敖漢旗發現的靑銅器及有關遺物」, 『北方文物』 1993-1.

綏德縣博物館, 1982, 「陝西綏德發現和收藏的商代靑銅器」, 『考古學集刊』 1982-2.

王未想, 1994, 「內蒙古林東塔子溝出土的羊首銅刀」, 『北方文物』 1994-4.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 ·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2.

鄭紹宗,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靑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 1994-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1980, 『殷墟婦好墓』, 文物出版社.

鐵嶺市博物館, 1990, 「法庫縣灣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90-1.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2, 「河北靑龍縣抄道溝發現一批靑銅器」, 『考古』 1962-12.

黑光 · 朱捷元, 1975, 「陝西綏德堰頭村發現一批窖藏商代銅器」, 『文物』 1975-2.

| 서양어 |

Andreeva, P., 2022, Re-making Animal Bodies in the Arts of Early China and North Asia: Perspectives from the Steppe, *Early China* 45, 413-465.

Sadykov, T., J. Blochin, S. Khavrin and G. Caspari, 2025, Expanding the Corpus of the Earliest Scythian Animal-Style Artefacts, *Antiquity* 99(408), 1569-1585.

Sadykov, T. R., J. K. Blochin, S. V. Khavrin and G. Caspari, 2026, Самые ранние образы скифо-сибирского звериного стил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вести* 50, 43-58.

Abstract

Caprine-Shaped Bronze Ornaments in Bronze Age Northeast Asia

Kim, Dongil (Former Academic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aprine-shaped bronze ornaments from Bronze Age Northeast Asia by establishing criteria for data reliability and iconographic identification and by comparing the materials according to cultural affiliation, chronology, object type, archaeological context, and mode of attachment.

The analysis shows that caprine-shaped bronze ornaments are found primarily in pastoral-nomadic cultural contexts. I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caprine imagery appears on several object types, whereas in the Yuhuangmiao Culture it is concentrated on button and belt ornaments. Its form also corresponds to object type and mode of attachment, with full-bodied profile representations occurring mainly on pendants and belt ornaments and partial frontal representations on hairpin terminals and button ornaments.

Chronologically, caprine imagery appears on the hilt terminals of Karasuk knives and daggers in the twelfth–eleventh centuries BCE. I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of the ninth–eighth centuries BCE, this earlier terminal tradition continued alongside hairpin terminals, full-bodied ornaments, and pendants. In the Yuhuangmiao Culture of the seventh–fifth centuries BCE, caprine imagery was selected within an established system of zoomorphic dress ornaments, particularly on button and belt ornaments.

The selection of caprine imagery was also related to subsistence environments. In the pastoral-nomadic cultures examined here, the husbandry of caprines, including sheep and goats, was closely connected to everyday subsistence. Repeated observation and recognition of these animals may have provided an experiential basis for representing their distinctive features in bronze ornaments. Across different periods and cultural settings, recognizable features such as curved horns and head forms were repeatedly depicted, while the imagery was reconfigured according to the object types and systems of dress and ornament in each culture.

Caprine-shaped bronze ornaments can therefore be understood as evidence for examining how people in Bronze Age Northeast Asia perceived caprines and expressed those perceptions through material culture.

Key Words : Caprine-shaped bronze ornaments, Animal imagery, Bronze ornaments, Upper Xiajiadian Culture, Yuhuangmiao Culture